

에너지분야 예비창업자를 위한 '에너지벤처창업스쿨' 개최 “창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가 여기 모였습니다”

■ 김인숙 기자(kis@energycenter.co.kr)

에너지벤처창업스쿨을 개최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요?

에너지기술분야의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들과 이제 막 창업하신 분들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고자 중소기업청의 후원으로 지난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본 과정을 처음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예비창업자들은 대부분 에너지분야의 특화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회계, 경영, 법률 등의 측면에서는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족한 면을 이번 강좌를 통해 채워줌으로써 사업의 기반을 닦는 데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하는 뜻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이번 강연에서 가장 역점을 둔 부분과 강연내용 전반에 관하여 소개해 주신다면요.

처음 창업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경영마인드라고 보고 어떠한 기업가정

신을 가져야 하는가에 비중을 두는 한편, 자금조달과 활용방안, 마케팅 전략, 회계·세무실무 등 경영실무에 꼭 필요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특히, 이경수 대덕밸리벤처연합회장, 전정봉 한국마케팅학술연구소장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강사로 직접 나서 올바른 벤처창업의 기초와 마케팅, 자금조달, 회계, 코스닥시장 등록, 창업성공사례 및 실패사례 등에 관한 생생하고 유익한 강의를 펼쳐주셨습니다.

이러한 강연내용은 에너지관련 창업자는 물론이고 다른 분야 창업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에너지벤처창업스쿨을 개최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저희 연구원내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지난 25년간 축적한 연구개발 성과물과 기술노하우를 입주업체에 이전해 한단계 높은 상용화기술을 개발하고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온 동시에 외부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

를 통해 경영, 마케팅, 법률, 자금 등의 지원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에너지벤처창업스쿨을

계기로 14개 입주업체 뿐만 아니라 외부 에너지업체들도 원격 지원함으로

써 업체들에게는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고 연구원측에서는

기술이전을 통한 수요개발(상품화)

이 활성화되어 상호 Win-Win

의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창업보육센터는 에너지기술분야의 예비창업자들의 성공적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제1회 에너지벤처창업스쿨'을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연구원에서 개최했다.

Special Interview

에너지벤처창업스쿨을 계기로 연구원내 14개 입주업체 뿐만 아니라 외부 에너지 업체들도 원격 지원함으로써 업체들에게는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고 연구원 측에서는 기술이전을 통한 수요개발(상품화)이 활성화되어 상호 Win-Win의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창업보육센터와 에너지벤처창업스쿨을 어떻게 운영해나갈 계획인가요?

저희 창업보육센터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구원내 입주업체를 비롯해 외부 관련업체에도 기술지원과 경영지원 등 원격적인 보육 지원노력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며, 입주업체를 위한 시설제공은 물론 입주자 창업진행도 평가 및 관리,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에 관한 각종 정보제공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에너지벤처창업스쿨 운영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예비창업자들에게 꼭 필요한 강좌를 보완·편성함으로써 에너지기술벤처 보육의 핵심기구로서의 중추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에너지벤처 창업준비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점이나 당부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기술의 우월성은 기본이고 시장성과 사업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으면 합니다. 전체 시장규모와 기존 진출업체에 대해 심도 깊게 파악하고, 보급하려는 기술이 국내에 어느 정도 성숙단계에 와 있는지를 판단해 모든 면에서 자신있을 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



권철홍 창업보육센터장은 고려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석사과정과 프랑스 파리6대학 박사과정을 마친 후 고려대 겸임교수, 에너지기술연구원 프랑스로소장, 기획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연구원내 창업보육센터를 이끌고 있다. 창업보육센터는 연구원의 개발 성과물과 기술노하우를 입주업체에 이전해 한단계 높은 상용화기술을 개발하고 성공적인 시장진출에 노력해온 동시에 경영, 마케팅, 법률, 자금 등의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